

지난 주일에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둘째 아들은 집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이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난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탕자였다 했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의 눈엔 아낌없이 베푸는 아버지가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는, 허비하는 탕자와 같았다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이와같다 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는 일이어도, 철저히 낭비하는 일처럼 보여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 했습니다. *기억들 나시지요? ^^;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생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가령,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는 구약학, 신약학으로 나뉘어지는 성서신학이 있고, 윤리학, 목회상담학, 조직신학, 실천신학등 다양하게 있지요. 그런데, 가령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하기도하구요.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윤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곤하죠. 목회상담학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천신학 전공하는 사람이 제일 실천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우습지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늘상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삶이 따라가지 못하니 부족하게도 보이는 법이죠. 남들보다 낫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삶이 우리의 말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조심하고 행동할 땐 더 조심해야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1 3:18)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가롯유다의 행동이 그의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롯 유다는 공공연히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걱정하거나 돌

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구제할 의무가 있었고 필요한 사람은 부끄러움 없이 구제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그러죠. 원래 구약시대에는 구제에 해당하는 전문용어가 없었는데, 학자들이 [체다카, tsedaqah]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체다카]는 “정의, 공의”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구제가 공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가룟유다는 공의를 얘기했지만, 그의 삶이 그의 말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공의’ 가 아니라 남들 앞에 자기를 포장하는 ‘자기 의’ 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 혹은 비슷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는 메세지를 담고 있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6:6-13, 마가복음 14:3-9, 누가복음 7:36-50, 요한복음 12:1-8)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점임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이 유월절이죠. 이렇게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들리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다니는 아람어로 “무화과의 집” 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잔치가 있었는데, 이전과 같이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 일을 하고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때,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향기를 풍긴다는 뜻]: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의 3,000미터 고지에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다년초인데, 당시 거래된 역사가 오래된 진귀한 향료였지요. 당시에 로마나 히브리인들이 귀한 손님을 맞을

때, 화환을 손님의 머리에 씌우거나, 값비싼 향유를 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혹은 시체를 장사할 때에도 향유를 발라서 방부처리를 하는 풍습이 있었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기 위해 값비싼 나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으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롯 유다는 그 향유를 딱 보자마자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바로 알아 차렸어요. ‘딱 보아하니 300데나리온 정도 될텐데 왜 낭비하나는 거죠!’ 대단한 눈썰미죠.

데나리온: 자유노동자의 하루일당, 오늘날로 하루 (\$70-100), 2만~3만불 정도의 가치예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가롯 유다의 말만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전혀 틀리지 않아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

그말만 놓고 보면 맞아요. 지난 주일에 첫째 아들에 비친 아버지는 탕자처럼 비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니까요. 너무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가롯유다의 눈에 비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냐고 했자나요! 2-3만불의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섬기면 얼마나 귀하고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선 ‘가만 두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를 보고 비싼 것을 낭비했다고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이를 오히려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가롯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

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일지 찾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자칫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면 쉽게 명분 있는 말? 말은 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말?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명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온맘다해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나 스스로가 남을 돕고, 사랑을 나누고, 경건의 삶을 살기 보다는, 남에게 “넌 왜 이렇게 밖에 못하나” 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남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말하는 경우죠. 우리는 남들 보고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고 허비하나’ 는 등 할 것이 아니라, 난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물질, 시간, 에너지, 재능)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낭비한다 할 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감사로 살고 있는가? 들이켜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사람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타이틀 혹은 직업 자체가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거룩한 직업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성경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십자가의 도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삶이 거룩하게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연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은 연기가 아니거든요! 신앙은 매일의 삶이거든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도 간혹있으나 직업이 사람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가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살림을 도맡아 하니 그 일 자체는 얼마나 귀찮을까! 그러나 그것만으론 안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했다거나,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님께 그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맘으로 자신에게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음을 보게 되요. 돈의 가치가 커서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땀흘리고 노력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흘린 땀의 댓가로 무언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사용합니다. 다 좋은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묻습니다. 내가 보내는 시간, 물질, 정성에 주님께서 과연 영광 받으시는가? 아니면 오로지 나의 명분, 욕심, 욕망만을 열심히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주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폐회 찬송으로 부르게 될 찬송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수록된 찬양들을 알면 알수록 그 배경을 통해서도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앞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가사만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복된 환경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처럼 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찬송시가 만들어지기까지 작사가 엘리자벳 프렌티스 여사가 가슴 저린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프렌티스 여사는 1818년 미국 메인 주에서 태어났고, 스물 일곱에 죠지 프렌티스 목사와 결혼했는데요. 워낙 병약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잘 썼었기 때문에 시인으로 작가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프렌티스 여사가 결혼한지 11년이 되던 해에 무서운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랑하는 두 자녀를 잃게 되었습니다. 프렌티스 여사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

고 있을 때 남편 프렌티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많은 가정들이 전염병으로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소. 지금이 우리가 성도들에게 늘 가르쳐온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시간인 것 같소.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잖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아이들은 더 좋은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치욕을 받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온갖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프렌티스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크신 사랑으로 다가오는 영감을 시로 적었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자녀를 잃은 시련 속에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한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발 위에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도전과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과 친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교회 내에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워져 있는 섬김의 기회이며 동시에 하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세기고 참회하는 사순절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또한 이웃에게 나누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